

2) 세지마쿤산

시목동(柿木洞) 입구에 있는 산으로 구석기시대(舊石器時代)의 고인돌 9개가 있는데 가로 2m, 세로 3m의 크기로 되어 있고 현재 보존되어 있다.

제4절 금성리(錦城里)[속명 : 검싱이, 수거령]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매봉산(鷹峰山) 지맥(支脈)이 삼척군과 경계를 이루며 동쪽으로 뻗어 남쪽으로 금산봉(錦山峰)을 이루고 그 아래에 물골들이 있다. 서쪽에는 수거령(嶺)이 있고, 남쪽은 옥녀봉(玉女峰)과 족두리봉이 쌍봉을 이루며, 북쪽은 대삼각지(大三角地)의 농지와 고적령(古積嶺)이 있고, 고개 너머에 강원도 삼척군 원덕읍이 있다. 검재 금성, 중간마, 아랫마, 내산골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졌으며, 마을회관은 2005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주민들은 마을에서 풍광이 빼어난 금산, 수거령, 도투말재, 마전곡, 옥녀봉, 족두리봉, 후두봉, 무당소를 8경으로 여긴다.

2. 마을의 역사

1630년경에 주씨(朱氏)라는 선비가 이 마을을 개척하였으며, 그가 항상 수레를 타고 이 고개를 넘었다 하여 지명을 수거령(嶺)이라 하였다. 그 후 행정구역 개편 때 뒷산에 성(城)이 있었다 하여 금성리라 하였다.

3. 가구 분포

총 51세대가 거주하며 영월 엄씨(寧越嚴氏)가 주를 이루며, 신안 주씨(新安朱氏), 울진 장씨(蔚珍張氏), 삼척 김씨(三陟金氏), 영일 정씨(迎日鄭氏), 울진 임씨(蔚珍林氏), 남양 홍씨(南洋洪氏), 평택 임씨(平澤林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고적령(古積嶺)

삼척군 원덕읍과 경계 지역으로 옛날 이 고개를 넘어 다닐 때 소 등에 짐을 싣고 이 고개를 넘었다 하여 고적령(古積嶺)이라 하는데, 이 고개 중턱에 집이 있어 나그네가 쉬어갔다 하여 나그네령(嶺)이라고도 부른다.

2) 금헌재(錦軒齋)

금헌재는 울진 지방 유학의 거봉인 경재(綱齋) 정연국(鄭然國) 선생의 초당이다. 경재 선생은 기호학파의 한 맥을 이룬 간재 전우 선생의 제자로 무실재 남진영, 가암 전원식 선생과 더불어 구한말 울진 유학의 맥을 이은 유학자이다. 유고로 ‘경재사고’가 전한다.

3) 내성리(內城里)

옛날 마을 안의 성(城)이다.

4) 수거령(嶺)

이 마을을 개척한 주씨(朱氏)라는 선비가 수레를 타고 넘던 고개다.

5) 옥녀봉(玉女峰), 마전곡, 쪽두리산, 벚골고개

옛날 옥녀(玉女)가 삼밭(麻田)에서 쪽두리를 머리에 쓰고 베를 짰다 하여 오늘날 이 곳을 옥녀봉(玉女峰), 마전곡(麻田谷), 쪽두리산(山), 벚골고개라 한다.

6) 임전골[깨밭골]

옛날 이곳에 깨를 심었다 하여 임전골[깨밭골]이라 한다.

7) 팽난들

팽나무 고목(古木)이 많이 있어 팽난골이라 불렀다가 태풍 ‘사라호’ 때 유실되었다.